

# 한자에 대한 미신 · 과신

김 상 조\*

## 차 례

1. 서론
2. 시각적인 효과가 뛰어나다
3. 조어력이 강하다
4. 몇 자만 익히면 엄청난 단어를 알 수 있다
5. 동아시아 공통의 문자다
6. 결론

## 1. 서론

해방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글 전용(이하 전용으로 줄임, 같은 방식으로 전용론 전용론자로 줄임)과 국한문 혼용(이하 혼용론으로 줄이며 같은 방식으로 혼용, 혼용론자로 줄임) 문제는 국어 정책의 커다란 논란거리였다. 이 논쟁을 살펴보면 전용론측에서는 한글이 우리 글이고 우수하기 때문에 전용을 해야 한다고 하는 반면에 혼용론자들은 한자도 다른 외국어와는 달리 우리 글이라고 하면서 한글의 단점과 한자의 장점을 들면서 혼용을 주장한다. 그러나 한글과 한자 모두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글의 장점만을 들어 전용을 주장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한다거나 한자의 장점만을 들어서 혼용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는 국한문 혼용론자들이 주장하는 한자의 장점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그것은 필자가 보기에 한자의 장점에 대한 생각이 지나치다는 생각을 그만둘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는 한자에 대한 미신이 강하게 있다. 즉 이름에 쓰이는 한자의 획수가 그 사람의 운명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성명철학이나 한자가 쓰여진 부적 같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밖에도 한자를 안 써서 탈선 청소년이 많다거나, 한자를 안 써서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한다거나 수학 성적이 나쁘다거나 하는 주장도 본질적으로 미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는 이런 억지에 대해서까지 정력을 낭비해가면서 틀린 것을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미신 말고도 한자의 장점에 대한 주장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즉 한자는 시각성과 조어력이 뛰어난 동아시아 공동의 문자라고 하는 것이다.

전용론자 중에서 배우기 어렵고 기계화가 어렵다고 한자의 단점을 지적한 글은 많다. 그러나 혼용론자들이 주장하는 장점 즉 시각성, 조어력 그리고 동아시아 공동의 문자라는 주장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그 타당성을 따져보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다. 필자는 이것이 만약 서로의 장점만을 들어 논쟁을 하는 것이 덧없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면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암묵적으로나마 인정을 하는 데서 나온 것이라면 그대로 덮어둘 수만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이러한 장점을 내세운 혼용 시도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도될 것이기 때문이다.

## 2. 시각적인 효과가 뛰어나다

한자의 장점을 말할 때 시각적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은 제일 먼저

거론된다. 아마도 혼용을 주장하는 가장 커다란 근거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것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 한자의 시각적 효과는 한글만이 아니라 모든 소리글자에 비교해 보아도 뛰어난 것이다. 그러나 시각성이 크다는 것은 한자 사용을 주장할 수만은 없는, 중요한 언어철학적 선택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한글을 포함한 모든 소리글자는 시각성보다는 청각적 변별성에 무게를 두어 고안된 문자다. 즉 처음부터 의미를 형상화하려 하여 고안된 것이 아니라 발음을 표기하기 위한 상징 체계가 소리글자인 것이다. 한자는 이와 달리 사물의 형상을 그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시각적 이미지를 고려하여 만든 문자다. 따라서 한글뿐만 아니라 모든 소리글자는 한자보다 시각성이 약하다. 따라서 시각성을 내세워 한자 쓰기를 주장한다면 혼용이 아니라 한자 전용을 주장하는 편이 더 나올 것이다. 한 걸음 더 나가 시각성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문자를 없애버리고 그림으로 대신하는 편이 더 효율성이 있을 것이다.

문제는 서로 다른 이념으로 만들어진 두 문자를 혼용할 때 각 문자의 장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혼용론자들이 지적하는 심각한 동음이의어 문제는 그것이 그렇게 낙관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혼용론자들은 혼용의 필요성을 동음이의어가 많아서 전용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너무 많은 동음이의어 문제는 한자를 쓰면서 발생한 것이다.<sup>1)</sup>

한글은 표기할 수 있는 발음 숫자가 어느 언어보다도 많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첫소리로 쓰이는 자음 숫자)\*21(모음 숫자)\*29(받침으로 쓰이는 자음 숫자)=11,571개이다. 발음만으로 따져본다면 11(첫소리로 사용되는 자음 숫자:ㅇ을 제외한 13개의 자음과 복자음

1) 사실 동음이의어가 없는 언어는 없다. 그리고 동음이의어가 많아도 그 의미는 문맥을 통해서 파악되기 때문에 그리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용론자들은 문맥을 제거한 단어만을 나열하면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부풀려왔다.

5개)\*18(전체 모음 숫자에서 필자가 보기에 발음 현장에서 구별이 잘 안 되는 /외/, /왜/, /웨/는 하나로만 계산한 숫자)\*7(받침으로 쓰이는 자음 숫자)= 2,142음이다. 이에 비하여 한자음은 총 500개 내외 정도이며, 이중 교육부 지정한 천8백자의 상용 한자의 음은 모두 405개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를 가지고 단어를 만들면 동음이의어가 나오는 것은 필연적이다.<sup>2)</sup> 그렇기 때문에 동음이의어 때문에 혼용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순환논리의 오류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자어를 만들지 않아야 하는데, 한자를 쓰는 한 한자어는 계속 만들어진다. 따라서 한자를 쓰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한자의 시각적 효과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뜻하는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한자 자체가 갖는 시각적 효과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자는 상형문자이기 때문에 글자 자체만으로도 대강의 의미는 알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한자는 문자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강의 의미나마 알기에는 너무 많이 추상화되어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自’(자)는 사람의 코를 상형한 글자다. 그런데 오늘날 ‘自動車’(자동차)의 自에서 코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이나 있으며, 안다고 하여 자동차의 뜻을 아는 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欠’(흠)은 사람이 입을 벌리고 호흡하는 모양을 상형한 것이다. 그렇다고 ‘歎’(탄), ‘歌’(가), ‘飲’(음) 등의 글자에서 ‘欠’ 모양을 보고 글자의 뜻을 짐작이나 할 수 있는가? ‘欠’이 입을 상형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글자의 의미를 아는 데까지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 ‘止’(지)는 윗 부분은 발가락을 아랫 부분은 발꿈치를 상형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서 이 글자의 모양을 보고 ‘그치다’라는 뜻을 추론해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歷’(력)의 의미에서 발의 모양과 관련되는 것

---

2) 따라서 혼용을 하기 위해서는 한자의 다양한 글자 모양에서 나오는 변별력이 그 많은 동음이의어 양산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큰 장점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필자의 생각으로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은 무엇일까?

논자에 따라서 몇 단계의 유추를 거친 주장으로 의미를 설명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한자에 대하여 그렇게 너그럽게 이해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너그러움을 한글에도 적용시켜보기를 간곡히 권한다. 한 걸음 양보하여 대강의 의미나마 알 수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있다. 그것은 전용을 하면 의미 파악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혼용을 해야 한다면 대강의 의미밖에 모르는 시각적 효과가 그렇게도 큰 장점인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한자의 시각성이라는 것은 글자 모양이 다른 데서 나오는 변별력 정도 이상은 못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말할 수 있는 한자의 시각적 효과는 중요한 개념을 갖는 단어를 한자로 쓰면 눈에 금방 띠어서 자연스럽게 강조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의 시각적 효과라면 굳이 한자로 쓸 필요가 없다. 한글로 쓰면서 특정의 단어를 고딕체나 기타 다른 글자와 구분되는 서체로 써주는 것만으로도 그만큼의 효과는 거둘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시각적 효과를 금과옥조처럼 말하면서 혼용을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근거로 한글을 내려 꺾는 주장도 있다.

音素文字라고 해서 모두 視覺性이 없는 것은 아니다. 英語는 音素文字로 되어 있어도 그것이 있다. …… 우리 한글의 경우는 字母(子音과 母音)가 어울려서 일단 하나의 音節(글자)을 이룬 다음 그런 음절이 몇 개 합쳐서 單語를 이루는데 비해, 英語의 경우는 字母가 몇 개가 직접 어울려서 單語를 이루어낸다. 字形도 字形이지만 같은 音素文字이면서도 한글에는 視覺性이 없는데 英語에는 그것이 있는 決定的인 素因은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

그러면 ‘學校’도 ‘학교’와 같은 투인데 어째서 ‘學校’에는 視覺性이 있는가. ‘學’에는 뜻이 있지만 ‘학’에는 뜻이 없기 때문이다. …… 視覺性이 없는 ‘학’과 ‘교’를 아울러 이어 놓아도 視覺性은 생기지 않는다. 그렇지만 ‘學校’는 그 투가 ‘school-boy’와 같다. 한글의 ‘꽃’에 시각성이 있는 것은 字形도 字形이지만 낱말로서의 뜻이 固定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글

도 풀어쓰기를 해서 낱말을 하나의 낱덩이로 해서 뜻을 固定시키면 視覺性이 깃들 基盤이 생길 것이지만, 그렇게 하면 그 字形(字母) 때문에 그나마 지니고 있던 視覺性마저 도리어 잃어버리게 된다. …… 한글은 音素文字라는 점에서는 英語와 같으면서 두세 개의 글자가 합하여서 하나의 單語를 이루는 점으로는 表意文字인 한자와 같다. 게다가 字形까지 그러니 한글은 골라가면서 視覺性이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悲感마저 품게 한다.<sup>3)</sup>

간단하게 말하면 한자는 말할 것도 없고 영어는 음소문자이면서도 시각성이 있는데, 한글은 풀어쓰지 않기 때문에 시각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꽃’은 아무리 의미가 고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풀어쓰지 않았으니 시각성이 없어야 하며, ‘학교’는 의미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로 쓰지 않더라도 풀어쓰면 시각성이 있어야 한다. 낱말을 하나의 낱덩이로 해서 뜻을 고정시키면 시각성이 깃든다는 말이 맞다면 ‘學校’를 ‘학교’라고 써도 시각성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글에 대해서만 시각성이 없는 것은 ‘선천적인 것이라고까지 말한다.’<sup>4)</sup>

그러면 소리글자는 시각성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

‘집’을 상징하는 것(말 : 필자 주)이 있는데, 썸어 구어로는 beth이다. 이 말은 간단한 집 -마루, 지붕, 벽 그리고 왼쪽이 터져 있는 모습과 아주 흡사하다 <sup>5)</sup>

이 말은 썸어 구어 ‘beth’라는 글자의 모양이 마루와 지붕, 벽 그리고 왼쪽으로 터져 있는 집의 모양과 아주 흡사하다는 것이다. ‘beth’라는 단어가 상형문자인가?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모양이 흡사하다는 것은

3) 張龍鶴, ‘한글神話의 虛構’, 韓國語文教育研究會 編, 『한글과 漢字』(一潮閣, 1985), 19~21면.

4) 위의 글.

5) Mario Pei, *All About Language*. (J.B. Lippincott company, Philadelphia & New York, 1954), p.25.

우연이거나 아니면 의미와 결합되어 연상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우연인가? 그렇다면 ‘꽃’이 주는 시각성도 우연인가? 어느 소리글자든 문자 자체로부터 나오는 최소한의 시각적 효과는 다 있다. 그리고 오래 사용하게 되면 의미와 결합되어 시각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beth’라는 단어에서 집을 연상하는 것은 그 의미에 익숙해진 사람에게나 가능한 것이다. 이 말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본래 의미가 아닌 소리를 기록하기 위하여 고안된 소리글자도 어느 정도의 시각성은 있으며, 그 정체는 바로 이 의미에 의한 연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몽쳐쓰면 시각성이 없고 풀어쓰면 시각성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언어학을 공부한 분이 아닌 작가의 이런 억지 주장에 이론적 반박을 하는 것은 그만두기로 하자. 문제는 이런 글을 ‘韓國語文教育硏究會’와 같은 단체에서 ‘國字論의 바른길’이라는 부제를 붙여 엮어낸 『한글과 漢字』와 같은 책에 실어놓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시종 주장하는 것은 혼용론인데 이 연구회에서는 이런 주장이 ‘국자론의 바른길’을 찾기 위한 주장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실어놓았는지 묻고 싶다. 이것은 혼용론이 국어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맹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한자의 시각성은 절대적인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한자의 자체를 통하여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은 전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문자학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무시해도 좋을 것이다. 결국 한자의 시각성은 다양한 글자 모양에서 나오는 변별성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도 한계는 있다. 한자는 하나의 글자에 하나의 의미만 있는 글자는 별로 없다. 대개가 두 개 세 개의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 어느 의미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단서는 문맥 이외에는 전혀 없다. 예를 들어보자. ‘便易’(편이)와 ‘貿易’(무역)에 공통으로 쓰이는 ‘易’은 어떠한 시각적 차이가 없다. 그러나 엄연히 서로 다른 음과 뜻을 갖는다. ‘事業’(사업)과 ‘師事’(사사)의 ‘事’는 음까지 같지만 의미는 분명

히 다르다. 이밖에도 이런 예는 얼마든지 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자의 시각성이라는 것은 한글에 비해서는 더 낫다고 하겠지만, 절대적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 3. 조어력이 강하다

한자는 조어력이 매우 강하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아무 글자나 두 개를 조합하면 두 음절 단어가 만들어지고, 세 글자를 조합하면 세 음절의 단어를 만들 수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자의 조어력은 실로 가공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1969년 이승녕은 한글학회 간의 『큰사전』(1957년 발행) 제6권 끝에 실린 통계표에 근거하여 古語, 吏讀 固有名詞 사투리를 除去한 표준말 140,464 어휘 중에서 순우리말은 56,115 개로 40%, 한자말은 81,362개로 58%, 외래어는 2,987개로 2%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sup>6)</sup> 그런데 1980년 이용백은 1961년도에 나온 이회승 편 「국어대사전」의 어휘 구성비를 총 225,203개의 標題語 중에서 고유어는 58,324개로 25.9%, 한자어는 150,935개로 67%, 외래어는 15,944개로 7.1%라고 보고하고 있다.<sup>7)</sup>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두 사전이 만들어진 4년 동안 우리말의 전체 어휘는 84,739개의 어휘, 백분율로 말하면 160%가 늘어났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고유어는 2,209개의 어휘가 늘어난 데에 불과하고, 한자어는 69,573개, 외래어는 12,957개가 늘어났다. 이 증가분 중에서 고유어는 2.6%에 지나지 않는데, 한자어는 무려 82%를 차지한다. 말을 바꾸면 그 기간 동안 우리말의 어휘 증가는 주로 한자어의 증가에 힘입은 것이다. 이 결과는 한자의 막강한 조어력이 고유어휘의 발달을 가로막는

6) 이승녕, 「한글 專用 뒤에 올 問題들」 『아세아』 3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한글과 漢字」 一潮閣, 1985 재수록

7) 李應百, 「국어 辭典 語彙의 類別構成比로 본 漢字語의 重要度와 教育問題」 『어문연구』 25,26 합병호, 「한글과 한자」에 재수록.



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쉬운 길(?)을 두고 누가 어려운 길을 택하겠는가.

그러면 우리는 이 막강한 조어력을 어떻게 써먹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는 한자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막강한 조어력을 거론하면서 한자의 편리함을 말하지만 실제로 낱말을 만들어내지는 못하였다. 우리가 사용하는 한자어휘 중 개화 이전의 것은 거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나라에 한자가 들어온 것은 2천년도 넘는다. 그것은 그리고 갑오경장 이전까지는 한문이 15세기에 만들어진 우리 글인 훈민정음을 제치고 주문자의 위치를 차지하였다.

그러면 그 후의 사정은 어떠한가? 개화 후 우리말의 한자어는 대부분이 일본에서 만든 것이다. 갑오경장으로 중국의 절대적 영향권에서 어느 정도나마 벗어나면서 우리는 일본의 문화적 영향을 일방적으로 받았는데, 이것은 언어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우리가 쓰는 어휘 중 근대 이후의 것은 대부분이 일본에서 만든 것이다. 이에 대하여 고종석은 “만약에 우리말에서 일본어의 잔재를 뽑는다는 것이 일부 순수주의자들이 주장하듯 일본어에서 수입된 한자어까지를 배척하는 것이라면, 우리들은 외마디 소리 말고는 단 한 문장도 제대로 입밖에 낼 수가 없을 것이다.”<sup>8)</sup>라고까지 말한 바 있다. 이 말은 다소 과장된 감이 없지는 않지만 솔직히 말하면 근본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 우리말의 실상이다. 긴 세월 동안 한자어는 우리말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정말이지 ‘국어의 語彙史는 가위 漢字 語彙의 증대사’<sup>9)</sup>라고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한자 어휘를 만들어낸 것은 서양의 문명을 받아들이며서였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인들은 지금까지 단어는커녕 개념조차 없던 어휘를 만들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sup>10)</sup> 그들은 막강한

8) 고종석, ‘우리는 모두 그리스인이다’, 『감염된 언어』(개마고원, 1999), 97면.

9) 주 5)의 책, 47면.

10) 그들이 겪은 어려움을 柳父章의 『翻譯語成立事情』(岩波新書 189, 岩波書店, 1982)이라는 책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알 수 있다. 이 책은 서양의 문물을 받아

조어력을 가진 한자를 가지고도 '조어'를 하면서 것처럼 많은 고생을 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한자의 장점을 말할 때마다 앵무새처럼 막강한 조어력을 말하지만 실제로 '조어'는 하지 않고 중국이나 일본에서 고생하여 만든 말을 수입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우리말 어휘 중에는 중국계 일체의 한자어가 전체 어휘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실정이 이런데도 막강한 조어력을 거들먹거리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우리는 한자의 조어력에 대하여 부끄러워하는 것 말고는 말할 자격이 없다.

우리가 사용하는 한자어는 이렇게 고향이 다르기 때문인지 한자어의 구조는 대단히 혼란스럽다. 무원칙하다. 日月(일월), 朝夕(조석), 晝夜(주야) 등은 각 글자의 의미가 대등하게 열거되고, 中央(중앙), 生産(생산) 등은 비슷한 의미가 반복 사용되고, 靑山(청산), 美人(미인), 産物(산물) 등은 앞 글자가 뒷 글자를 꾸며준다. 日出(일출)이나 日沒(일몰) 등은 우리말의 구조와 같이 뒷 글자가 서술어처럼 사용되는가 하면 讀書(독서), 殺人(살인) 등은 우리말의 구조와는 달리 뒷 글자가 목적어처럼 사용된다. 그런가 하면 矛盾(모순), 哲學(철학)이나 有機(유기) 無機(무기)는 각 글자의 본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제3의 뜻을 가진 단어도 있다. 원칙이 없어 보이는 이러한 한자어의 짜임새에는 혼용론자들이 금과옥조처럼 말하는 시각성은 글자 모양에서 나오는 변별성 말고는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技法'(기법)의 뜻이 '기'하는 '법'인지, '기'와 '법'인지, '기'가 '법'인지, 아니면 '법'을 '기'하는 것인지, '技'(기)와 '法'(법)의 뜻을 알아도 애초에 '기법'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

들이면서 그전까지 일본에 개념조차 없던 단어를 어떻게 만들어 쓰게 되었는데 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한 책으로, '社會'(사회), '個人'(개인), '近代'(근대), '美'(미), '戀愛'(연애), '存在'(존재), '自然'(자연), '權利'(권리), '自由'(자유) 등 9개와, 우리가 '그 또는 그녀'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는 '彼'(피), '彼女'(피녀) 등 겨우 10(또는 11)개의 단어를 설명하는데 책 한 권을 쓰고 있다.

#### 4. 몇 자만 익히면 엄청난 단어를 알 수 있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막강한 조어력과 관련이 되는 것으로 한자에 대한 과신 중 시각성과 함께 가장 큰 것으로 혼용론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 한자의 장점이다. 이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社’(사)는 토지신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 글자가 들어가는 ‘社稷’(사직), ‘會社’(회사), ‘社會’(사회), ‘社會主義’(사회주의) 등의 낱말에서 ‘토지신’이라는 글자의 의미를 안다고 하여 낱말의 뜻을 알 수 있는 단어는 무엇이 있는가? ‘회사’와 ‘사회’는 똑같은 글자의 배열 순서만 다른데 의미는 각 글자의 의미와는 전혀 다르다. 또 ‘사회’의 의미를 안다고 하여 ‘사회주의’의 의미를 알 수도 없다. 家(가)는 집을 뜻한다. 그러면 家庭(가정), 國家(국가), 大家(대가), 一家(일가)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 家의 뜻만 알면 다 알 수 있는가? ‘일가’가 ‘한 집안’인지 ‘학문이나 예술, 기술 등에서 독립한 유파’인지, 아니면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었다는 뜻’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날’이라는 뜻을 가진 ‘經’(경)이 들어간 단어 經緯(경위), 經度(경도)와 經濟(경제)에서 ‘날’의 의미가 유효한 단어는 어떤 것이 있는가? ‘數’자의 의미를 안다고 하여 代數(대수), 實數(실수), 虛數(허수), 有理數(유리수), 無理數(무리수), 正數(정수), 整數(정수), 自然數(자연수), 負數(부수), 小數(소수), 素數(소수)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으며, 수학 성적을 높일 수가 있는가.<sup>11)</sup> 필자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비슷비슷한 발음으로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을 염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예는 찾아보면 놀라울 정도로 많다.<sup>12)</sup> 특히 많이 사용

11) 吳之湖, 앞의 책, 126면에서는 “漢字를 모르기 때문에 이 漢字로 된 數學用語를 아무리 배우고 또 배워도 理解할 수 없고 記憶할 수도 없는 것이다. 初中高校를 통해 그중에서도 數學成績이 제일 나쁜 것은 그들이 數學用語를 하나도 모르기 때문이다.”고 주장하면서 앞의 ‘數’(수)가 들어가는 단어를 예로 들어가면서 “漢字教育의 有益性, 絶對的 必要性”을 주장하고 있다.

하는 말에서 더욱 많이 발견된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한자는 글자만 알면 단어의 의미는 저절로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나치게 믿고 있는 부분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몇 글자만 알면 많은 단어를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5만 자에 가까운 한자를 배우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은 혼용론자들도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혼용론은 사용할 한자의 숫자를 제한하자고 하는 이른바 ‘한자제한사용론’이다. 그러면 혼용론자들이 주장하는 ‘몇 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서 한자의 숫자를 제한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선정한 한자 수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교부 주관하에 1952년에는 1000자, 1957년에는 1300자, 1972년에는 1800자로 그 수가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1967년에 신문협회가 2000자를 선정한 사례가 있다. 이것은 1300자나 1800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2500자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하는 주장도 있으며<sup>13)</sup> 이보다도 많은 3000자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sup>14)</sup>

여기에서 보듯이 혼용론자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글자의 숫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많아진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이를 표현할 어휘도 늘어난다. 제한된 숫자의 한자 사용이 허가 되면 이를 조합하여 단어를 만들어 쓰게 되는데 어느 정도의 조합이 이루어지고 나면 사용 글자를 늘리자는 주장이 나올 것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3000자를 인가하게 되면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는 그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가 없다.

또 하나 3000자는 그렇게 간단히 익힐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한자

---

12) 이에 대하여 한자 한 글자에 반드시 하나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반박을 할지도 모르겠으나, 이것은 앞에서 시각적 변별성의 문제로 말한 바 있다.

13) 김민수 교수가 1974년에 문교부 선정 1800자 외에 교육용으로 700자를 추가하여 선정한 바 있다. (『문장연습』 고려대학교 대학국어 편찬실 편, 1984, 51면)

14) 柳鳳榮, 『社會實情과 教育政策』, 『한글과 漢字』.

吳之湖, 『國語醇化는 原因治療부터 해야 한다』, 위의 책.

『한자·한자어의 이해』 『문장연습』, 51면.

3000자라면 한자를 가지고 모국어 문자생활을 하는 중국에서도 일상 생활의 기초 용어 범위를 넘는 것이며, “우리나라와 중국의 漢文古典의 상당 부분도 읽을 수 있는” 정도다.<sup>15)</sup>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음의 비판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할 것이다.

초등교육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인간이나 사회에 대해 유익한 지식을 몸에 익히기 전에 한자를 쓰고 외우는 것만으로 공부시간의 대부분을 보내고 만다. 귀중한 시간이 “글자를 외우기 위한 고투에 소모”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소학교를 졸업해서도 학생들은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언어능력”을 획득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신문이나 잡지 같은 일반적인 독서물에도 곤란을 느끼기” 때문이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사정을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그들이 “국자 기호를 외우는 끝없는 일에 고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도대체 어떤 근대국가가 이처럼 어렵고 시간만 낭비하는 표현수단, 의사소통수단을 가지는 사치와 여유를 향유하고 있던 말인가” 하는 개탄이 농후하게 나타나 있다.<sup>16)</sup>

사정이 이런데도 여전히 몇 자만 익히면 된다고 하고 이 몇 자를 익히는 것은 별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혼용론자들이 혼용을 주장하는 근거는 ‘漢字語는 漢字로 써야 讀解에 能率的’<sup>17)</sup>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제한사용 범위 밖의 글자로 만들어진 낱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들 단어들만 한자어이면서도 ‘한자로 써야 독해에 능률적’인 원칙에서 예외는 아닐 터, 그렇다면 이런 단어는 없애야 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장은 혼용론자에 의해서부터 부정된다. “이 생각(한자제한사용론:필자 주)은 ‘漢字 즉 言語’라는 이치를 모르는 데서 나온 하나의 천박한 常識論이다. 한자는 記號가 아니고 言語다. 그런 까닭으로 漢字를 制限

15) ‘漢字·漢字語의 이해’, 『문장연습』(고려대학교 출판부, 1984), 51면.

16) 이연숙, ‘일본어에의 절망’, 『創作과 批評』, 1999 가을호.

17) 남광우, 『現代國語文字의 諸問題』(일조각, 1973), 106면.

한다는 말은 곧 言語를 制限한다는 말이 된다.”<sup>18)</sup> 타당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한자의 제한 사용도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 5. 동아시아 공통의 문자다

사람들 중에는 한자가 동양 공통의 문자라고 하면서 한자 사용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거창하게 세계화 국제화 운운하면서 한자 사용을 주장하는 경우까지 있다. 그러나 이것도 한자에 대한 과신이다. 한자가 통용될 수 있는 나라는 기껏해야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sup>19)</sup> 한·중·일로 한정하여 논의를 해도 많은 과장이 있다. “입장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현재 중국이 일상의 기초 용어로 규정 한 한자는 2205자다. 반면에 일본이 상용한자로 사용하고 있는 한자는 1945자다. …… 여기에 우리나라의 현대 한자어들을 집어넣고 공통집합을 내보면 약 1500자 정도를 얻을 수 있다.”<sup>20)</sup> 이에 따르면 한·중·일 공통의 글자는 1500자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 이것은 오늘날 혼용론자들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1800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동아시아 공통의 문자로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글자를 익히지 않으면 안 된다.

문제는 또 있다. 한자가 동양 공통의 문자이며, 한자를 익히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타당성 있으려면 주로 일본에서 만들어진 약자, 그리고 중국의 간자까지 익혀야 할 글자수로 되고 만다. 결코 몇

18) 오지호, '국어순화는 원인치료부터 해야 한다', 『한글과 한자』, 130면.

19) 월남도 옛날에는 한자를 쓴 한자문화권 안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옛날에 한자를 배웠던 나이 많은 세대 말고는 한자를 모른다. 이밖에 특히 동남아시아 각국에 퍼져 있는 화교들이 있지만 그들 나라에도 화교는 소수이며, 그들을 상대하기 위하여 한자를 배우는 것은 정력 낭비가 아닐 수 없다.

20) 김경일 '한중일 3국 발음으로 한자 배워야 나라가 산다' 『신동아』, 1999 8월호.

자만이라고 만만하게 말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다. 물론 언어는 어렵다고 안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아무리 어렵고 부담스러워도 익혀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를 어렵다고 하는 것은 한자를 추방해야 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동아시아 공통의 문자로 삼기 위해서는 익혀야 할 글자 수를 늘려야 한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한자로는 겉으로만 동아시아 공통의 문자이지, 내막적으로까지 공동의 문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또 하나 한자가 한·중·일의 국제어가 될 수 있는가? 모름지기 한 언어가 국제어가 되려면 한 나라의 독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여 국제어가 아니라 특정 국가의 패권 장악을 위한 도구가 되고 말아버린다.<sup>21)</sup> 그런데 근래 중국에서 복잡한 글자를 간략하게 만들어 쓰는 이른바 간체자는 그들이 한자를 동아시아의 공통어로 생각하여, 동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편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제정된 것인가? 그 과정에서 중국 이외에 공통의 문자라는 꿈을 꾸고 있는 우리나라나 일본의 의견은 조금이라도 배려되었는가?

김씨 성을 가진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 가서 이름을 한자로 쓰는 순간 그는 김씨가 아니라 '진'씨가 되어버렸다. 명함에다 영어로 'Kim'이라고 써주어도 마찬가지다.<sup>22)</sup> 또 중국의 국영방송인 CC TV에 일본어 강좌 프로그램에서 일본인이 자기의 이름을 'kimura'라고 말하는데도 통역사는 중국인에게 '무춘'씨라고 옮겨주고, 중국인의 '무춘'을 일본

21) 이른바 'TOEFL', 'TOEIC'이 그 구체적인 예가 될 것이다. '외국인의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시험' 즉 'TOEFL'(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의 단계가 지나 국가간의 의사소통 도구 시험 즉 'TOEIC'(Test of English as an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이 되면 이것은 출제국에서 지배어 시험을 주관하는 것은 필자연정 국제어는 될 수는 없다. 여기에는 문체 출제국식의 영어만 있을 뿐이며, 같은 영어권 국가라도 다른 나라는 출제국 영어의 허용범위 안에서만 옳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2) 이것은 필자의 경험이다. 필자가 '김'씨일 수 있었던 것은 명함에 한자를 아예 쓰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였다.

인에게는 ‘기무라’라고 하는 것을 본 바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요타’ 자동차는 중국에서는 ‘펑띠엔’ 자동차이지 ‘도요타’ 자동차는 아니다. 중국인들은 한자를 국제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자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고유명사가 이 정도이니 그밖의 일반적인 말이 어떨 것인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또는 일본)에서 그들의 필요에 의해 의미를 바꾸어 쓰면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 이른바 국제어인 한자의 실상이다.<sup>23)</sup> 뿐만 아니라 한자문화권 밖에서 우리가 혼용을 하는 것을 보는 시선은 국제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문자를 차용해서 쓰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가 중국의 종속국이라는 이미지만을 확인 확장시킨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동양 공통의 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방적인 짝사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6.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혼용론자들이 한자의 장점으로 드는 시각성이나 조어력, 그리고 국제성이라는 것은 과신이 많으며 실제로는 그렇게 유효한 주장이 못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 빨리 전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에서도 선각적 지식인들은 청나라 말기부터 한자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나는 노력을 하였으며<sup>24)</sup> 우리나라의 혼용론자들이 혼용을 하여 오늘날의 발전을 이룩했다고 하는 일본에서

---

23) 글자의 의미는 중국이나 일본과 같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는데, 옛날에는 중국에서 쓰는 의미를 주변국에서 무조건 받아들였기 때문에 뜻이 같았던 것으로 보인다. 현대 중국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의미와는 다른 것이 옛날에 비하여 훨씬 많다. 이점은 일본의 경우에는 좀 덜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오늘날에는 주로 일본에서 사용하는 의미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24) 김문창, 『국어국자표기론』(문학세계사, 1984), 127면에 魯迅, 黎錦熙 등의 주장을 소개하고 있으며, 倉石武四郎 『漢字の運命』, 岩波新書33(岩波書店, 1982) 2, 3, 4장에는 중국에서 한자를 폐지하려고 시도하였던 과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



도 언젠가는 한자가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전망까지 있다.<sup>25)</sup> 다행히 근래에 우리나라에서는 (상업적인 이유라고 하지만) 실생활에서 한자의 사용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한자를 쓰지 않기로 한다고 해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혼용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말 어휘의 반 이상이 한자어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정말이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혼용론자들은 한자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것만으로는 전용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전용을 하려면 한자어를 모두 고유어로 바꾸라고 한다. 타당성 있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장시간에 걸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이루어야 할 우리의 과제다. 이것을 하루아침에 다 해내라는 것은 억지박에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이 노력을 매우 소홀히 한 것이 사실이다.<sup>26)</sup>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한자의 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sup>27)</sup>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한자의 교육이 아니라 한문 교육이다. 한자와 한문은 다르다. 한문은 한자를 일정한 문장 법칙에 따라서 배열하여 이루어진 글이다. 한문에서 일정한 문장 법칙을 모르면 한자 5만자를 다 안다 해도 뜻을 알 수 없다. 한자 어휘는 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교육시키면 된다. 우리말 어휘의 반 이상이 한자어일 뿐 아니라, 우리의 옛 기록 대부분은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자 교육만으로는

25) 倉石武四郎, 앞의 책, 서문.

26) 필자는 이점에서 최현배의 시도와 실패를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최현배만큼 고유어를 (비록 특정 분야에 치우쳐 있는 감이 없지 않지만) 지속적이고 대규모적으로 만들어내는 시도를 한 사람은 없다. 지금 시점에서 그가 만든 것 중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도 많지만 그렇다고 그의 시도를 계승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일회적인 것이 되게 한 후배들 책임은 너무나도 큰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이것이 꾸준히 이어졌다면 우리말의 조어력은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상태가 되어 있을 것이다.

27) 흔히 전용론자들을 한자 교육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그리하여 전통문화를 황폐화시키는 것으로 몰아부치고 있으나, 전용론자 어느 누구도 한자 한문 교육을 하지 말자고 주장한 적은 없다.

영주어문 제3집(2001)

이러한 한문 기록은 읽어낼 수가 없다. 그 어려운 글자를 2000자 가까이  
이나 익혀서 얼마 안 되는 혼용문을 제외한 기록을 읽을 수가 없다면  
얼마나 큰 정력 낭비인가?